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 인사말씀

자연만물을 이루는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이룬 결실을 내보이며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종단과 지역사회에 대한 한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부처님 법에 목마른 세상과 후학들에게 바르게 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자리까지 잘 살피는 정진에 여념없기를 바랍니다.

제34대 집행부는 지난 2년 동안 자비와 화쟁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지원, 성소수자 문제 등이 이제는 종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갈등이나 종단 내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화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매일 개최하면서 종단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래세대, 종단 불신 문제 등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중 공의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단 운영을 이렇게 사회와 함께, 종도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종단 역사상 새로운 실험입니다.

종무행정 영역에서도 승려복지, 인사고과제 등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안착화되고 세종시 종교용지 확보를 비롯한 각종 목적 불사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가대학 교육과정 개편도 이제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전통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행정정보를 구축하고 해당 사찰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은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인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의 안정, 교구와 중앙의 발전이라는 종단의 3대 목적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종무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통합 종단 출범 후 최대 불사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남은 2년 이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비롯한 종무 관계자들의 헌신으로 고비를 잘 넘겨왔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었고 각계각층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어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34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중앙교구균형발전 역시 더 성과를 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종무기관에 종단 행정 역량이 집중되는 형태로는 종단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행정 시대입니다. 각 교구에서도 지역에 맞는 정책과 그에 걸 맞는 행정 역량 갖추고 적극적인 지역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종단과 교구가 함께 잘 운영될 때 우리가 꿈꾸는 종단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찰관련 행정 내용을 재정리하고 관련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재편 할 수 있도록 부분적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은 총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3대, 34대 집행부를 통해 꾸준히 일궈온 불교중흥의 씨앗이 지방행정시대를 맞아 각 교구에서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학원 문제를 비롯한 법인 관리 문제, 분담금 제도 개선을 비롯한 종단 재정의 건전화, 세종신도시를 비롯한 종단 목적불사, 종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선 및 시스템 개편, 각종 사회적 활동과 지역전법 강화,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등의 과제들도 차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60년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예산안 역시 이러한 종단적 과제들을 잘 추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른 의안들과 함께 잘 살펴서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단 목적사업에 대한 기여를 확장하고자 하는 종무운영의 경험과 소신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될 것입니다.

종단 안팎이 각종 현안들로 가득합니다. 책임을 주장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묵묵히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되겠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